

조선시대 男子의 首飾 연구(I)

장 숙 환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특임교수

A Study on Korean Man's Head Ornaments in the Joseon Dynasty

Sook-Whan Chang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2007. 12. 13. 접수; 2008. 3. 12. 채택)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pertinent literature and examined relics of manggon(a headband worn to hold a man's topknot hair in place), donggot(a topknot pin), and chigwan(a topknot cover). Before the modernized short hair style, wearing a gat was an important custom. Therefore, manggon, which was used to hold a man's hair in place under the gat, was considered an essential part of the man's official dress code.

Donggot is a pin that held the topknot hair in place. It was a must have for a married man, like the binyeo, a lod-like hairpin, for a married woman. Unlike gwanja, it had nothing to do with official rank, but materials were of a variety of materials, including jade and gold.

The structure of the donggot was studied in three parts-head, neck and body. Major forms for the head include the mushroom, bean and ball. Bullet and half-cut bullet forms were also found. Forms for the neck include straight-neck and curved-neck. A neck with a belt around a double chin was also found. Forms for the body include the tetrahedron, octahedron and cylinder.

The most popular form for silver and white bronze donggot heads was the mushroom, followed by bean and pile forms.

Chigwan is also called chipogwan, chichoal, choalgyesogwan, noingwan and sangtugwan. In poetry it was called chichoal, and it used to be called taegogwan in the past as well. Chigwan was so small that it managed to hold a topknot. According to confucian custom in the Joseon period, by wearing chigwan, men didn't display their bare topknot even when they didn't dress up. When they went out, they wore another official hat over the chigwan.

Key Words: Manggon(망건, 網巾), Donggot(동곳, 同聿), Chigwan(치관, 緇冠), Chichoal(치촬, 緇撮), Taegogwan(태고관, 太古冠)

Corresponding author ; Sook-Whan Chang

Tel. +82-2-3277-3752, Fax. +82-2-3277-4680

E-mail : Changsw@ewha.ac.kr

I. 서론

본 논고는 조선시대 남자의 수식인 網巾을 중심으로 동곳과 緇冠을 고찰해 본 것이다.

이는 우리 의복문화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었던 頭飾문화의 일면을 파악하고 정리하는데 계기를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유물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많은 연구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문헌고찰과 함께 현전 유물에 대한 實證의 연구를 優位에 두었다. 먼저 동곳의 표본유물로 118점을 분석유물로 삼았으며, 그중 60점을 表로 만들어 형태와 재료를 분석해 보았다.

문헌고찰에서는 『궁중발기』에 나타난 宮中冠禮나 嘉禮時에 사용한 남자들의 首飾物과 문학 작품에 보이는 官隸들의 머리치장에서 동곳을 참고하였다.

조선시대 유교사회의 풍습으로 의관을 갖추지 않을 때도 緇冠을 착용해 맨상투를 드러내지 않았고 차림을 갖추는 때는 위에 다른 관모를 덧썼다.

이러한 緇冠의 표본유물로는 18점을 表로 만들어 재료와 크기를 비교 참고하였다. 동곳과 치관의 表에 대한 그림은 지면의 한계로 생략하였다.

II. 조선시대 男子首飾의 種類

예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자를 썼던

것은 동서양이 같았지만 특히 동양에서는 冠을 쓰는 것이 곧 禮라는 관념 때문에 실내외를 막론하고 한시도 士人の 머리에서 관을 벗어서는 안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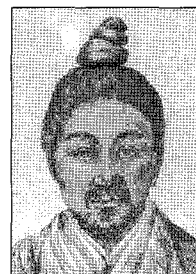
단발을 하기 이전에는 冠을 쓰는 것이 곧 禮라는 등식에 따라 관을 다른 어느 것 보다는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관을 쓰기에 앞서 머리카락을 여며 매는 데 필수적인 網巾은 자연히 衣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다.

1. 網巾

조선말기 興宣大院君 李昰應(1820~1898)이 壬午軍亂(1882) 직후 청나라에 납치되어 삼년간 유폐되었을 때 극비리에 측근들에게 보낸 친필 쪽지[簡札] 가운데 “내 망건 하나와 평소에 쓰고 다닐 망건 네댓 개를 보내거라.”라는 내용이 보인다. 이것은 당시의 극한상황 속에서도 수발에 필요한 망건이 그 어느 것보다도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견문기에는 당시 남성들의 머리 모양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자주 보인다. 지볼트(Siebold)는 『朝鮮見聞記』에서 “남자는 머리를 소라 빵처럼 둥글게 묶는다. 여름에는 가마 위에 머리카락을 숨여 낸다. 그러면 머리 다발이 훨씬 적어져서 청결함을 유지하기에 좋고 땀을 덜나게 한다.…때때로 남자들은 말 털로 짠 머리 망을 쓰고 역시 그 위에 말털로 짠 髹족한 두건을 쓰는 경우도 있다. 망건이라고 불리는 이 머리망은 경탄할 만큼 좋은 솜씨로 짜여져 있다.”라고 쓰고 있다.

또한 1890년대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한



<그림1> 網巾을 쓴 상류층 남자의 머리 모양 (左)
網巾을 쓰지 못한 하류층 남자의 머리모양 (右)
『A Forbidden Land: Voyage to the Corea』

미국의 여의사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의 『朝鮮見聞記』를 보면 “정수리 부분은 면도를 하여 머리털을 깎아 버리는데 이 부분에 중국인들은 머리털을 기르고, 중국인들이 깎아 버리는 부분이 조선에서는 머리털을 기르는 부분이 된다. 머리털을 왼쪽으로 모아서 틀어 올려 머리 중심의 약간 앞쪽으로 상투를 만든다 <그림1>. 나무나 은으로 만든 핀을 그 아래쪽에 꽂아서 상투가 똑바로 서게 한다. 약 2인치 넓이의 말털[말총]로 만든 띠를 머리에 씌워서 머리털이 삐죽삐죽 빠져나오는 것을 막는 것으로 남자들의 머리 손질은 끝난다.”라고 되어있다.

이상의 글은 19세기초(1828)와 19세기말(1890)에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남자 머리 모양이다. 상투 밑 머리털을 돌려 깎는 ‘배코(상투를 얹히는 자리)’ 치는 모습을 양인이 설명하고 있고, 말총 망건을 만드는 솜씨에 감탄하고 있다.

성인 남자들이 笠帽등을 착용하기 전에 머리털을 여며 때는 데 필수적인 망건에 대하여 다음 章부터 고찰하기로 한다.

1) 網巾의 起源

巾類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망건은 엄밀히 말하면 冠巾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頭飾으로서 그 기능은 한마디로 絜髮整首(劍髮整首)에 있는 것이다.

망건의 기원을 崔南善은 중국 唐나라에 두고 있다.1) 원래 망건은 중국 당나라 때부터 그 원류를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그러나 당나라 때는 널리 일반에게 사용되지 않았으며 앞이마를 가리는 부속물에 불과했다.



<그림2> 唐敦煌壁畫「樂廷瓊夫人行香圖」家屬部分 『中國古代服飾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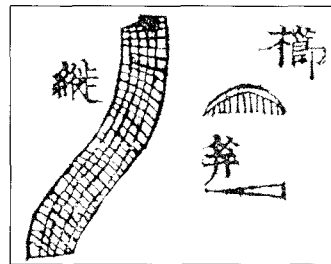
당나라 돈황벽화 『樂廷瓊夫人行香圖』 家屬부분인<그림2>를 보면, 開元天寶(713~756)時 太原都督 曷特勤부인 王氏와 그 가족의 그림 중에 가운데 줄에 청년과 婦女 三人의 앞이마에 망사로 드리워진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삽도의 설명은 주요인물이 貴族命婦의 盛裝을 하고 있으며 三人은 透額羅網巾을 착용했다고 하면서, 劉肅의 『大唐新語』에 “武德貞觀(618~649)時는 궁인의 말을 타는 자는 전신을 가리기 위해 戎夷에서 들어 온 羈羅를 많이 착용하는데, 永徽(650~655)이후에는 목에 닿는 길이로 드러나 보이게 망이 내려진 帷帽를 모두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같은 종류가 투액라의 응용이며 앞서 삼인이 착용한 투액라망건은 개원 천보 간에 帷帽制가 폐지된 후에 남은 유물이라고 하고 있다.2)

즉 開元天寶 이후에 유모제는 폐지되었으나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 도시 부녀의 일반장식으로 남은 것이 투액라의 사용으로 돈황 벽화 『曷特勤부인행향도』 가족 중 삼인이 앞이마에 두르고 있는 것이다. 즉 이마를 가리는 장식화 된 망건을 착용한 것이다.

『五洲衍文長箋散稿』에 보면 “今之網巾 卽古之羈制”라 하고3) 『蜩菴瑣語』에 의하면, 망건은 처음에는 명주실로 하다가 萬曆(1573~1620)間에 와서야 비로소 머리카락·말총 등을 실 대신 썼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 제도를 따랐을 것이지만 지금 상고할 길이 없고 그 근본을 따져보면 그게 바로 緹(쇄) 제도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四禮便覽』 士冠禮에 보면 “緹(사)는 머리를 싸고 상투를 싸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검은



<그림3> 緹(緹)·綈(綈)·계(笄)의 그림 『小學書圖』

비단을 사용하여 길이는 육척(周尺)이다. 겹으로 만든다. 정수리에서 앞이마 위에 마주대어 상투를 감는다. 옛 사람은 남녀가 통용했다. 지금도 남자는 망건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곧 남은 제도이다.⁴⁾

망건의 전신이 되는 纒는 일명 縱이라고 한다 <그림3>. 纒는 머리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 머리를 싸는 것이다. 『居家雜服攷』에 “纒韜髮而結之者”라 하여 纒는 머리와 계를 싸고 이를 묶는 끈이고 또한 『儀禮』(사관례)에 “賓正纒”란 말은賓이 纒로서 冠者의 용모를 바로 잡아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는 뜻으로 纒는 머리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 머리를 싸는 목적과 장식적인 목적도 있다.

『四禮便覽』에 “纒는 黑縵을 사용하고 長六尺이다.”고 하니, “검은색은 하늘의 색이므로 머리에 쓰니 머리는 곧 天이라 검은 것이 마땅하다. 길이를 六尺으로 정한 것은 머리를 충분하게 싸기 위함이고, 흑색은 五行의 水를 뜻하며 天數가 一이고 地數가 六이다. 천수를 일척으로 하면 너무 짧으니 지수를 쓴 것 같다.”⁵⁾라고 纒의 색과 크기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纒의 遺制가 망건류 라고 생각된다.

지금과 같은 형태인 망건류는 元 이후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元代에 극심한 계급압박은 많은 지식인이 법률보호와 생활보장을 위해 도교에 입문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교는 의식·경전, 예술상대 발전을 하게 되었다.⁶⁾ 이로 인해서 다종다양한 머리쓰개인 巾褱類가 생겨나고 따라서 일종의 망건류와 같은 쓰개는 후일 명대 건과제도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즉 망건류는 元代 도교의 극성에 따른 부산물인 건과류 가운데 하나이다. 元代 도사들의 斂髮用 쓰개였다. 이것이 明太祖에게 채택되어 定制화하는 이야기는 『明史』 여복지 洪武 24年條(恭讓王 3年)를 비롯해서 諸書에 반복하고 있다.

李德懋는 그의 저서 『靑莊館全書』에서 다음과 같이 망건의 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蜺菴瑣語』에 보면 망건의 제는 명에서 시작되었다 한다. 明太祖가 神樂觀에 미행하여 道士가 繭絲로써 小網을 엮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니, ‘이를 사용하여 머리를 묶는다. 網口에 帛으로 邊을 만들고, 兩幅 조금 뒤에 두 小圈을 연결하되 金玉 또는 銅錫으로 이를 한다’고 대답하였다. 망건은 兩 양머리에 각 小繩을 걸어 두 圈안에 서로 꿰고, 머리 갖에 頂東하여 눈썹과 망은 가지런히 하고는, 하나의 繩으로 둘러 동였는데 이를 網帶라 하였다. … 그리하여 앞은 높고 뒤가 낮아 형태가 흡사 범이 쭈구리고 앞은 것 같아 虎座網巾이라고도 하였다. 이에 명 태조는 기뻐하면서 관에 명하여 數十頂을 만들어 천하에 반포하였는데, 萬曆年間(1573~1620)에 이르러 민간에서는 落髮 馬鬃으로 이를 만들게 되어 絲로 만드는 것에 대신하게 되었다.

『三才圖會』에서 말하기를 國朝(明) 初에 천하를 평정하고 고향을 고쳤는데 이때 실로 망을 걸어 머리를 싸매어 이를 망건이라 하였으니 이에 식자 사이에서는 이를 가지고 中原을 法束하고 四方平定을 한 뜻이 여기에 있다고 하고 있다. “四方平定, 六合一統”이란 뜻을 취한 것은 새로운 봉건왕조의 吉兆를 위한 정치상 象徵意義가 있는 것이라 한다.⁷⁾

이를 미루어 볼 때 앞서 신락관 도사가 말했던 ‘萬髮俱齊’는 또한 萬劫을 治齊하는 뜻도 되므로, 명태조가 망건을 창제한 동기도 역시 정치상 상징의의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은 사실을 『朝鮮常識』에서는 “...망건의 제는 진작 東(우리나라)으로 전하고 차차 國情에 인하여 馬尾를 원료로 하였다가 馬尾의 법이 도리어 明으로 逆輸入되어 그 만력 간에 널리 유행으로 본 양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상에 사실을 反證 할 수 있는 자료로 世宗實錄 2年(1420) 更子條에 馬尾망건을 明使에게 증여한 기사와, 成宗 19年(1488)에 왔던 명사 董越이撰한 『朝鮮賦』에 東國의 망건은 다 馬尾로써 만들었다는 기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첨부하여 반증이 될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文宗實錄에 “結網巾器”라 있고, 이를 설명하여 망건은 韜髮物인데 馬尾로써 망과 같이 만들었다. 고 하고 있다.

그리고 『芝峰類說』에서는, 『稗史』에 이르기를 “馬尾裙이란 것은 조선에서 시작된 옷인데, 이것이 흘러서 중국 서울로 들어와 귀한 사람이나

친한 사람 할 것 없이 이것을 입는 자가 날마다 늘어 갔다. 成化年間에 와서는 조정 관리들도 모두 이것을 입었으나 이 옷이 요망하다 해서 弘治 初年에 비로소 법으로 금했다.”라고 했다. 이 옷은 곧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鬘裙으로 祖宗朝에서는 다투어 이것을 숭상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없어 졌으니 역시 한 때의 좋아하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8)고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五洲衍文長箋散稿』에 서는, 成宗 20年(1489)에 鬘衣를 입지 말도록 명하였는데 특권관 柳子光이 아뢰기를, “제주 수령이 종의를 직조하면서 말꼬리와 갈기를 모두 자르므로 말들의 꼬리와 갈기가 없다고 합니다. 崔溥(최부)가 표류 끝에 중국에를 갔는데 그 곳 사람이 종의가 있느냐고 묻기에 없다고 대답하였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지난번 李滉(이삼)이 왔을 때 종의를 많이 샀었는데 지금 너만이 없는 것을 보니 참으로 가난한 선비로구나’ 하더라니 그 꺼릴 바 없음을 알 만합니다. 하여 그 길로 다시 금령을 내렸다고 한다.”9)라고 하는데 상기 두 사실을 종합해 미루어 보아도 馬尾망건이 중국으로 역수입 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같이 말총으로 만든 망건에 대한 소견을 星湖 李瀾은 “...명나라 이후부터는 또 鬘羆라는 제도가 온 천하에 퍼져서 집에서 기르는 짐승꼬리로 사람머리 위에다 씌우게 되었다. 이는 모두 순서가 뒤바뀌어지는 상징인데, 시대가 변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10)라고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

2) 우리나라 網巾의 制

(1) 網巾을 쓰는 시기

망건은 상하귀천 모두 관례로써 상투를 짠 후 쓰게 된다. 남자 나이가 15세에서 20세에 이르면 관례를 치른다. 관례란 어린이가 성인이 되

었다는 뜻으로 冠을 씌우는 의식이다. 初加·再加·三加의 세 절차가 있어 三加禮를 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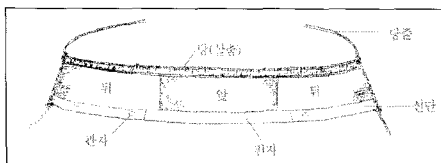
초가 때는 冠者가 雙紵[쌍상투]를 짜고 四揆衫·勒帛·彩履로 정한 자리에 나오면 贊이 관자의 머리를 빗겨서 외상투를 짜고 망건을 씌우며 贊이 축사를 읽으면 찬이 치포관에 笄를 꽂고 幅巾을 빈에게 주면 빈이 관자에게 씌운 뒤에 관자는 방에 들어가서 사규삼을 벗고 深衣에 大帶를 매며 履를 신는다.11)

光海君 2年條에 보면 祖宗朝에서는 元子를 世子로 책봉하는 날로부터 비록 관례를 앉았더라도 문득 망건에 익선관을 쓰고 아침근롱포를 입고 사부와 빈객을 접대하였으며 관례하지 않은 것에 구애되어 편복을 입지는 않았다. 그리고 들으니, 황제가 冠을 하지 않아 비록 上髮하지 않았더라도 관·포는 일체 예문에 따른다고 하였다는 것으로12) 관례 전에 망건과 관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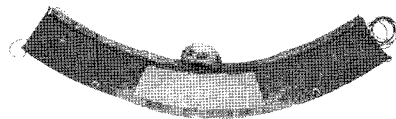
이 같은 경우는 중국에도 있었는데 “萬曆初년에는 童子들의 머리가 길면 빨처럼 양 옆으로 동여매게 했다가 나이 20여세가 되어야 비로소 망건을 썼는데, 天啓(1621~1627)간에 와서는 나이가 15~16세만 되면 곧 망건을 쓰게 하여 빨처럼 동여매고 다니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고, 『蜩菴瑣語』에도 ‘남자가 머리를 길러 관례 전에 邊子로 앞에서 뒤로 머리를 묶었는데 그 이름이 邊子勒項이었다.’ 하였다. 나도 어렸을 때는 그걸 보았는데 그 후 없어지고 말았다.”13)고 한다.

(2) 網巾의 部分 名稱과 着用 例

망건은 ‘당’이라 하는 상부의 줄라매는 곳과, 편자[邊子]라 하는 하부를 줄라매는 곳으로 구성된다. 전면에 그물처럼 엮은 데를 ‘앞’이라 하고 후면에 뒤통수를 싸는 데를 ‘뒤’라고 하며, 망건을 매는 줄을 ‘당줄’이라 한다. 망건을 모두 馬尾로 만들되 ‘앞’ 만은 人髮 또는 駱駝尾로



<그림4-1> 網巾의 各 部分 名稱
『韓國의 冠帽』



<그림4-2> 平常時에 사용하는 網巾
梨花女大 瀟人服飾美術館 所藏

떠서 곱게 만들었다. 선단은 흑색공단으로 하고 喪中이면 백색포로 한다.

망건을 쓸 때는 ‘당’은 무수한 고를 맺어 두른 것이니 고의 구멍에 가는 당줄을 꿰어서 뒤에서 머리를 졸라서 상투에 잡아매고 ‘편자’는 양쪽 끝에 든든한 당줄을 달아서 편자의 귀 뒤에 當하는 곳에 관자를 달고 좌우 쪽 당줄을 맞바꾸어다가 관자로 꿰어 내어서 다시 망건뒤로 가져다가 엇걸어 맨 다음에 두 끝을 상투 앞으로 가져다가 칭칭 동여맨다<그림4-1>.

材料는 말총으로 양쪽 가는 촘촘하게 뜨고 앞이마가 닿는 부분은 약간 성글게 엮고, ‘선단’은 흑색공단, 흑색무명, 생명주로 하고 喪主는 베 [麻布], 무명[白布]으로 하며 ‘당줄’은 명주실로 꼬아 만든다. 그 형태는 말총으로 뜬 網形狀이다<그림4-2>.¹⁴⁾

중국의 망건은 前高 後低하여 虎坐網巾이라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것은 앞이 높고 兩鬢 위가 조금 낮아 八字網巾이라 하였고, ‘편자’는 길고 ‘당’의 둘레는 짧아서 위가 오그라지게 생긴 복자망건, 일자망건 등이 있었다.

또한 屍身에는 흑단으로 網을 대신하였으며 喪人은 布로서 대신하였고 喪服中에는 망건 兩端의 선단을 黑으로 하지 않고 白으로 하였다고¹⁵⁾ 한다. 燕山君 元年(1495) 1월조에는 왕이 進香 때에 상아관자를 붙인 白鬚망건을 쓴 일도 있었다.

『萬機要覽』 재용편에는 大殿의 誕日節日表裏物膳衣襪에 頭衣類를 보면, 馬尾網巾의 일년간 수량이 2부이다.

成宗 22年(1491) 9월에 “內殿에서 전에 사용했던 御網巾을 내다가 상의원으로 하여금 수선하게 하는데 터진 곳이 많고 御衣에 흰 동정도 때가 많으니 왕의 검소함이 대개 이와 같다.”고 하였다.¹⁶⁾

『經國大典』 工曹 京工匠에 尙衣院 4명, 工曹 2명의 網巾匠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망건을 진상하는 것은 물론 수선까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망건의 着用法 및 去垢法

李暉光은 『芝峰類說』에서 “망건을 평상시 쓰고 있는 것은 중국과 우리뿐이다.”¹⁷⁾라고 말하고 있다.

망건은 상투를 뜬 머리털을 여미어 매는 데는 편리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도 많았던 것 같다. 東京人類學會誌에 발표된 “韓人間에 사용되는 冠의 종류” 가운데 망건의 관한 글의 全文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韓語로 이것을 ‘망건’이라 하며 재료는 말총으로 뜬 것으로 冠을 쓸 때는 必히 이 불건을 충분히 이마 부위에 긴박하고 남은 끈을 당줄과 같이 머리칼에 결부시킨다. 然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은 강하게 조여 맴으로서 양눈 꼬리가 위로 당겨지는 것이 좋다는 습관에 따름으로서 頭部에 痛疾을 느끼며 또는 종기 등이 생겨 당분간은 참기가 어렵다고 한다.

본인이 該地 여행 중 全州의 三南學堂長을 지내는 小島今朝次郎 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그가 채집한 한인의 두골은 어릴 때부터 망건을 착용한 것으로 보며 앞이마 한쪽의 뼈가 종이와 같이 얇아져서 이미 부식되어 구멍이 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舊習이 몸에 미치는 정도는 추측함에 족했다. 여기서 평생 성년의 부류에 들어가는 자는 十二三歲에도 이 망건을 착용하고 그 위에 감투를 쓰고 그 위에 笠, 順으로 착용됨으로서 모든 冠에서 필수적으로 이 망건을 착용치 않을 때는 없다.

<附記> 본인은 그 땅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 戴冠생활을 한 자를 조사해 본바 망건이 닿던 이마 部位의 살은 한층 낮았음이 통상이었다. 또한 前年 삼전의 慶應義塾에 來學한 한인이 散髮한 것을 보니 앞이마에 주름살이 생겨서 털을 너무 바짝 자르면 이마에 피부를 자를 우려가 있다고 들은 바 있다. 여하튼 頭部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심히 極에 가까울 정도였다.”고 한다.

이 같은 망건을 바르게 착용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망건이란 머리털을 싸매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바짝 죄어 매서 이마에 눌린 흔적이 있게 해서 안 되고, 늘어지게 매서 귀밑에 흩어진 털이 있게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눈썹을 눌러 매지도 말고 눈 꼬리가 위로 치켜들게 매지도 말라”¹⁸⁾고 하였다.

망건 때 빼는 방법은 계란 노른자를 발랐다가 刷子와 附子로서 깨끗이 씻은 즉 새것이 되고, 뜨거운 잿물[灰汁]에 끓이면 또한 좋고, 망건에

<표1> 동곳의 種類 및 크기

分類 番號	名稱	材料 大分類	材料 小分類	年 代	規格(cm) 長	備 考
1	翡翠동곳	琉璃寶石	玉	朝 鮮	2.5	葷頭直項圓錐形 碧色점박이무늬
2	"	"	"	"	3.6	葷頭直項圓形
3	"	"	"	"	4.2	半球直項圓錐形
4	蜜花동곳	"	蜜花	"	6.0	葷頭直項圓錐形 銀裝飾
5	珊瑚동곳	"	珊瑚	"	3.7	自然形圓錐形
6	"	"	"	"	3.0	平頂部曲項圓錐形 銀裝飾
7	"	"	"	"	3.2	弧形頂部直項圓錐形 銀裝飾
8	"	"	"	"	3.9	平頂部直項圓錐形 銀裝飾
9	"	"	"	"	4.4	平頂部曲項圓錐形
10	"	"	"	"	5.0	"
11	"	"	"	"	5.8	"
12	紅珊瑚동곳	"	"	"	5.9	平頂部直項圓錐形 銀裝飾 眞紅色珊瑚
13	木동곳	木	梧桐木	"	3.4	球頭曲項4面 軟褐色木
14	黑角동곳	骨角貝甲	獸角	"	3.5	平頂部圓錐形 黑色
15	"	"	"	"	4.3	"
16	"	"	"	"	4.5	豆頭直項圓形
17	牛角동곳	"	"	"	3.8	平頂部圓錐形 珊瑚色
18	"	"	"	"	4.4	"
19	"	"	"	"	3.6	葷頭曲項圓形 珊瑚色
20	"	"	"	"	4.3	球頭曲項圓形 珊瑚色
21	大理石동곳	石	大理石	"	5.0	葷頭直項圓形 黑色얼룩무늬
22	玉동곳	琉璃寶石	玉	"	4.5	葷頭直項圓形
23	"	"	"	"	4.7	"
24	"	"	"	"	5.5	"
25	"	"	"	"	4.3	"
27	"	"	"	"	6.5	"

分類 番號	名稱	材料 大分類	材料 小分類	年 代	規格(cm) 長	備 考
28	"	"	朝 鮮	"	5.3	"
29	"	"	"	"	5.7	"
30	"	"	"	"	5.8	"
31	琉璃동곳	琉璃寶石	琉 璃	"	4.5	葷頭直項圓形 黑色무늬
32	"	"	"	"	4.1	弧形頂部圓錐形
33	"	"	"	"	4.5	葷頭曲項圓形
34	"	"	"	"	4.7	球頭直項圓形
35	"	"	"	"	5.0	葷頭直項圓形
36	"	"	"	"	5.4	"
37	鍮동곳	동합금제	鍮	"	3.9	葷頭曲項圓形
38	"	"	"	"	4.2	球頭曲項圓形
39	鐵동곳	"	鐵	"	4.6	葷頭曲項 4面
40	"	"	"	"	3.8	"
41	銅동곳	"	銅	"	3.9	葷頭直項圓形
42	"	"	"	"	5.9	豆頭曲項圓形
43	"	"	"	"	4.9	豆頭曲項 4面
44	靑銅동곳	"	靑 銅	"	5.0	"
45	"	"	"	"	5.0	"
46	朱錫동곳	"	朱 錫	"	3.7	葷頭曲項 4面
47	"	"	"	"	4.1	"
48	"	"	"	"	4.2	"
49	"	"	"	"	4.4	"
50	"	"	"	"	4.2	"
51	"	"	"	"	4.6	"
52	白銅동곳	"	白 銅	"	4.2	"
53	"	"	"	"	5.3	"
54	"	"	"	"	4.7	球頭直項 4面
55	"	"	"	"	3.8	球頭直項 6面
56	"	"	"	"	4.4	球頭直項 4面
57	"	"	"	"	4.3	球頭直項 8面
58	"	"	"	"	4.0	球頭直項(面이각임)
59	"	"	"	"	3.9	球頭直項 4面
60	"	"	"	"	4.6	球頭直項 6面

때가 없으면 眼疾 頭痛이 없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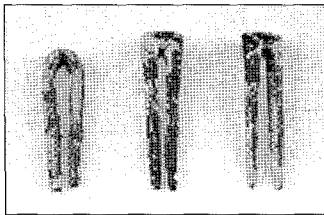
2. 同串

동곳은 망건에 달린 부속장식은 아니지만 상투가 풀리지 않게 고정시키는 것으로, 기혼남성의 필수 首飾物이다.

동곳은 남자들이 상투를 트는 풍습과 관계를 갖고 생긴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이 상투를 트는 풍습은 고대부터 있었으므로 동곳도 사용된 지 오래된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은 조선시대의 동곳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朝鮮時代 동곳의 種類 및 使用例

雁鴨池에서 나온 통일신라 청동제 동곳은 고려시대 동곳과 형태가 비슷한데 동곳 머리가 ㄷ자형으로 각이 진 것이 특징이다<그림5>.20)



<그림5> 統一新羅 靑銅 동곳, 「雁鴨池」

쌍각인 고려의 동곳에 비하여 조선시대 동곳은 다리가 하나이다. 동곳은 상투를 트 뒤에 풀 어지지 않게 끝마무리하는 도구로써 꽂는 위치

는 의료 선교활동을 한 로세타 세우드의 글을 인용하면, “머리털을 왼쪽으로 모아서 틀어 올려서 머리 중심의 약간 앞쪽으로 상투를 만든다. 나무나 은으로 만든 핀을 그 아래쪽에 꽂아서 상투가 곧바로 서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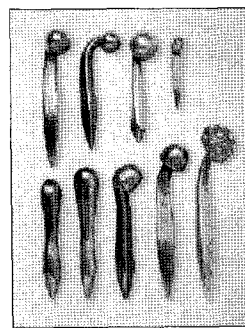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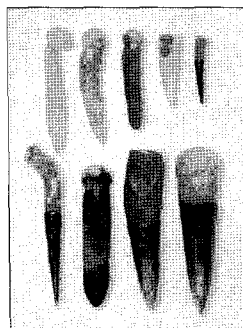
또한 黃泓根은 『韓國裝身具美術研究』에서 동곳에 대한 일화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투가 풀리지 않도록 상투 잔 끝에 끈을 달아 동곳에 칭칭 감아 매어 놓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상투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斷髮令 때 관원들이 상투의 동곳이 꽂힌 곳을 휘어잡고 잘랐다고 한다. 그러면 일시에 상투가 풀렸기 때문이다.”고 전한다.21)

상류계급에서는 동곳을 風簪과 같이 금은옥 석보패로 만들어 상투를 장식했다<그림6>.

대보름날밤 난봉꾼의 상투동곳과 기녀의 허리춤 노리개를 한데 묶어 다리 밑에 던지는 것으로 사랑을 약속했다는 남성 애정문화재 1호가 동곳인 것이 무관하지 않다. 동곳은 상투를 트 뒤에 풀리지 않게 꽂는 수식물이라는 점에서 부녀자의 쪽머리에 꽂는 비녀와 비견된다.

동곳의 재료는 金·銀·白銅·翡翠·珊瑚·瑪瑙·大理石·黑角·牛角·牛骨·琉璃·木·鐵·銅·鍮·錫 등 다양하다<그림6,7,8>.

일반 서민은 나무나 우각·우골·주석·백동·철·동·유[갓쇠] 등으로 만들었다. 喪中에는 나무·흑각으로 대신하고 屍身에는 버드나무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移葬하는 시신이 銀동곳을 꽂았다는 후손들의 전언에 따르면 피장자 洪禹協(1655~1691)은 품계가 정삼품 당하관으로 미라화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頭髮은 상투



<그림6> 上流層이 사용한 玉石동곳 및 金屬동곳
梨花女大 瀟人服飾美術館 所藏

하나로 틀어 모았고, 여기에 은으로 보이는 흰색 동곳을 끼우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동곳은 이장 때에 다시 문었다고 한다.²²⁾ 이는 나무동곳 외에도 평소에 사용하던 동곳을 사용한 것 같다.

환옥관자	이쌍	자만호관자	오쌍
밀라동곳	이벌	산호동곳	십개
비취옥동곳	삼개	순금동곳	이개
옥동곳	이개	진주동곳	삼개

(1) 궁중관례와 가례 시 사용된 남자 수식 품
 ① 임오년(壬午年: 1882) 왕세자 순종의 관례 때 창덕궁 및 慈殿에서 보내오신 각종 佩物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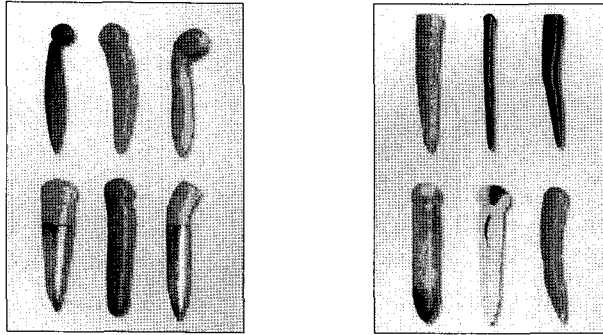
② 『壬午 東宮 가례시 嬪宮마누라 빈혀 노리 계발기』²³⁾

금패풍잠	삼개	호박풍잠	일개
산호관자	이쌍	비취옥관자	십쌍
순금관자	일쌍	옥관자	구쌍

純金 蓮花쥬도貫子	3雙
純金 梅花관자	3雙
純金 초롱관자	2雙
純金 민 관자	2雙
純金 동곳	5件

<표2> 『궁중발기』에 나타난 網巾飾과 同串²⁴⁾

풍잠	관자	동곳	출처발기(년대)
금패풍잠 오건 명호박풍잠 오건 진주풍잠 오건	진옥관즈 오쌍 비취옥관즈 오쌍 산호관즈 오쌍	진주동곳차 오건 산호동곳 오건 비취옥동곳 오건	임오가례시 브팀발기(1881)
		밀라동곳 이벌 산호동곳 십개 비취옥동곳 삼개 순금동곳 이개 옥동곳 이개 진주동곳 삼개	임오관례·가례 (1882)
	순금년화쥬도관즈 삼쌍 미화관즈 삼쌍 초롱관즈 이쌍 민관즈 이쌍	순금동곳 오건	임오가례 (1882)시 패물목록 『임오천만세동궁마마가례 시빈궁마누라빈혀노리개 발기』 『新造珮物記』
	純金蓮花水鳥貫子 三雙 純金梅畫貫子 二雙 純金草龍貫子 二雙 純金環貫子 二雙	純金童串 五箇	
	白玉環貫子 一雙 純金貫子 一雙		
	翡翠玉貫子 貳雙 紫瑪瑙貫子 貳雙		
			乙酉十月十七日 李應俊進上
			乙丑六月十六日 崔鶴永別進上
		同串 二箇 (翡翠玉 眞珠)	『(文房裝身具件記)』



<그림7> 玉石製 各種 동곳
梨花女大 瀟人服飾美術館 所藏

또한 肅宗 6年(1680)에 해창위 吳泰周에게 출가한 顯宗의 3女 明安公主의 『명안공주 가례등록』에서 남자 수식품으로는 공주儀賓의 玉貫子를 갖춘 망건 각각 한 개와 親氏 여섯 분의 錫貫子를 갖춘 망건 각각 한 개씩으로 되어 있다.

신연 급창 치레 보라...
외올망건 대모관자 眞絲
당줄 달아 쓰고 偃月상투
산호 동곳 琥珀 風簪
光彩난다

(2)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동곳의 사용 예
별감의 머리 치레를 『漢陽歌』傳承 놀음조에 서는,

중양[別監]과 지방[급창] 官隸들의 머리단장이 실감나게 잘 묘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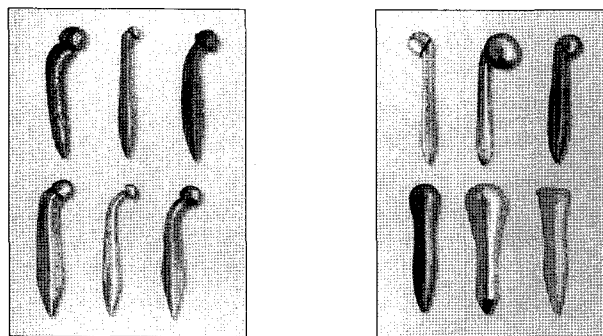
별감의 거동보소 난번별감 백여 명이
맷시도 있거니와 치장도 놀라울 사
편월상토 밀화동곳 대자동곳 섞어 꽂고
곱게 뜬 평양망건 외점박이 대모관자²⁵⁾

2) 朝鮮時代 동곳의 形態 및 材料 分析

『獄中花』에 보이는 新延 及唱의 호사스런 머리치장은,

이상은 궁중관례나 가례 시에 사용한 남자들의 수식물과 官隸들의 머리치장에서 볼 수 있는 동곳을 찾아보았다. 다음에는 동곳의 양식을 머리형태, 목의형태, 몸체의 형태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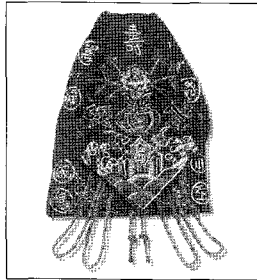
동곳머리는 버섯형태[蕈]·콩형태[豆]·공형태[球]가 있으며, 이 밖에 탄환형태, 상부가 잘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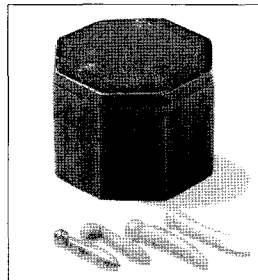
<그림8> 金屬製 各種 동곳
梨花女大 瀟人服飾美術館 所藏

<표3> 동곳의 形態와 材料

名稱	玉	珊瑚	蜜花	木	石	琉璃	鍍	鐵	銅	白銅	青銅	朱錫	銀	銀鍍金 (金銅)	獸角
蕈頭直項圓形	•				•	•			•						
蕈頭直項圓錐形	•		•												
蕈頭直項4面													•		
蕈頭直項5面														•	
蕈頭直項6面														•	
蕈頭二重直項6面													•		
蕈頭二重直項8面													•		
蕈頭曲項圓形	•					•	•						•		•
蕈頭曲項4面								•		•		•	•		
蕈頭曲項7面													•		
弧形頂部圓錐形						•									
弧形頂部直項圓錐形		•													
平頂部圓錐形													•		•
平頂部橢圓形													•		
平頂部彈丸形													•		
平頂部直項圓錐形		•													
平頂部曲項圓錐形		•													
球頭直項圓形						•									
球頭直項4面										•			•	•	
球頭直項6面										•			•		
球頭直項8面										•			•		
球頭曲項圓形							•								•
球頭曲項4面				•									•		
半球直項圓錐形	•														
豆頭直項圓形															•
豆頭直項4面													•		
豆頭直項5面													•		
豆頭曲項圓形									•						
豆頭曲項4面									•		•				
彈丸形													•	•	
自然形圓錐形		•													
佛頭蕈形曲項4面															
총 계	4	4	1	1	1	4	2	1	3	4	1	1	16	4	4



<그림9> 刺繡 동곳주머니
個人 所藏



<그림10> 동곳집과 동곳
梨花女大 瀟人服飾美術館 所藏

탄환 형태가 있다. 목 형태는 ‘곧은 목’과 ‘굽은 목’이 있으며, 二重 턱에 띠를 두른 것도 있다. 몸체는 각이 있는 4면체에서 8면체까지 있으며 원통형도 있다.

118점의 동곳 유물을 머리·목·몸체의 형태에 따라 구분 조합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32종류의 다양한 형태를 유추해 내었다.

蕈頭直項圓形, 蕈頭直項圓錐形, 蕈頭直項4面, 蕈頭直項5面, 蕈頭直項6面, 蕈頭二重直項6面, 蕈頭二重直項8面, 蕈頭曲項圓形, 蕈頭曲項4面, 蕈頭曲項7面, 弧形頂部圓錐形, 弧形頂部直項圓錐形, 平頂部圓錐形, 平頂部橢圓形, 平頂部彈丸形, 平頂部直項圓錐形, 平頂部曲項圓錐形, 球頭直項圓形, 球頭直項4面, 球頭直項6面, 球頭直項8面, 球頭曲項圓形, 球頭曲項4面, 半球直項圓錐形, 豆頭直項圓形, 豆頭直項4面, 豆頭直項5面, 豆頭曲項圓形, 豆頭曲項4面, 彈丸形, 自然形圓錐形, 佛頭蕈形曲頭4面

동곳의 형태와 재료와의 관계를 表로 만들어 본 결과 금속은 銀이 가장 많았으며 白銅, 金銅의 순서였다. 옥석은 白玉이 많았고 珊瑚가 다음이었다. 이 밖에 재료는 琉璃와 獸(牛角·牛骨·黑角)이 많은 것이 흥미롭다.

이는 옥이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일견 구별이 어려운 유리로 옥처럼 보이려고 한 것 같다. 우각이 많은 것도 같은 의미로 산호 같이 보이기 위해서 흰색 우각에 산호와 같은 색을 염색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銀동곳의 동곳머리에는 버섯형태가 단연 많았고, 버섯형태가 기본형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

음으로는 콩형태, 말뚝형태가 있다. 하부는 말뚝 같이 생긴 것도 있고 조금 굽은 형태도 있는데, 중간 형태가 굽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꽃았을 때 빠지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 아닌가 한다. 동곳의 길이는 옥석은 2.4cm[珊瑚]~6.0cm[紅珊瑚]이고 금속은 2.5cm[銀]~6.0cm[銅]이다.

산호와 밀화동곳 중에 꽃는 부분을 銀으로 만든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 옥석은 귀하고 고가였으므로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동곳 머리 부분만 사용한 것 같다. 또한 우골에 산호색을 물들여 산호인양 멋을 부린 동곳도 흔히 보인다.

成年으로 구분되는 12~13세의 어린 신랑과 머리 빠진 노인들이 사용한 길이 2.3cm의 작고 감직한 은동곳은 많은 동곳 가운데 유난히 눈길을 끈다.

동곳은 크기가 워낙 작으므로 간수하고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특별히 주머니나 동곳 집을 만들어 보관하였다. 純祖의 둘째 부마가 썼던 繡동곳주머니<그림9>가 그 좋은 예가 되겠다. ‘壽’자 밑에는 모란꽃 광주리가 중심을 이룬 藥囊형태의 주머니로, 宮繡로 곱게 수놓아 은실로 징꿨고, 쪽색의 끈술로 마무리 하였다. 오른쪽 동곳 집은 木製에 壯紙로 배접하고 옷칠을 한 팔각 함으로 뚜껑에 역시 수자 문양이 있다<그림10>.

3. 緇冠

치관은 일명 緇布冠·緇撮·撮髻小冠·老人冠 이라고도 부른다. 詩에는 치찰이라 하고, 옛



<그림11> 尹定鉉(1793-1874)의 方巾 속에 縹冠
潤松美術館 所藏



<그림12> 申鉉(1639-1725)의 臥龍冠 속에 白色 縹冠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날에는 太古冠이라 하였다. 다음은 조선시대 치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1) 朝鮮時代의 縹冠

치관은 흔히 상투관이라고 부른다. 18세기의 실학자인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 『詩經』의 大雅의 都人士章에는 “왕풀로 짠 것이며 검은 천으로 된 것을 썼네 [臺笠縹撮].”라고 하였다. 그 注에 이르기를, “臺는 향부자풀[夫須]이고 치찰은 치포관이다. 관은 그 생긴 것이 너무 자그마해서 겨우 상투를 싸맬 수 있다. 심의를 입고 치포관을 쓰며, 그 위에 복건을 쓴다.”고 하였다.

『梅天野錄』에서 良齋 田遇는 그의 문인들에게 모두 심의·치포관·복건을 쓰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장이 서는 날이면 심의·치포관·복건에 나막신을 신고 다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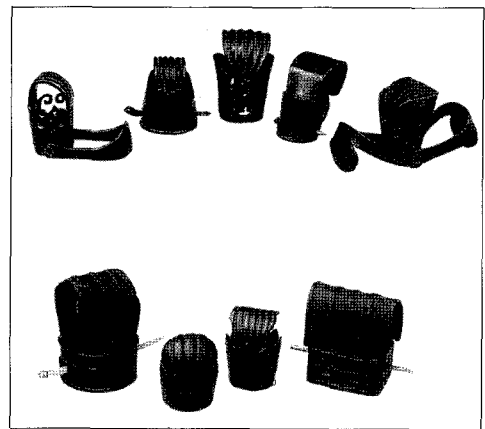
『金華耕讀記』에 의하면, 치관은 치포관이나 때에는 치찰로 지으니撮은 그 상투를 거둔이다. 옛날에는 太古冠이라 하였다. 그 制는 작으나 五梁이 있으니 요즘은 사람들은 활계소관을 楮紙로 만들기도 하고 鬚로 만들기도 한다. 모두 梁이 있고 옷칠을 하니 모두 치찰의 遺制이다. 가례에 실린 치관과 『三才圖會』에 실린 오적관과 같은 것은 지금의 치찰의 관과 더불어 대체로 같다.

상투관은 상투를 겨우 거두는 작은 梁冠형태이다. 조선시대 유교 사회의 풍습으로는 의관을 갖추지 않을 때도 상투관을 착용해 맨상투를 드러내지 않았으며 차림을 갖추는 위에 다른

관모를 덧썼다. 상투관 위에 덧쓰는 건과 관은 幅巾과 方巾이 많으나. 臥龍冠도 있다<그림 11,12>.

전해 내려오는 상투관을 보면 마포·나무·대나무·가죽·牛角·犀角 등으로 만들었으며 종이를 여러 겹 배접하여 만든 것이다.

가죽이나 鬚로 만든 것에는 八卦나 唐草紋·卍字紋·太極紋 등을 투각하거나 양각한 고급품이 있는데 전후로 날개처럼 움직이는 풍잠이 부착된 것도 있다<그림13>. 이것은 상투관 위에 덧쓰는 冠이 벗겨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상투관은 관의 모양을 축소시켜서 만든 것이므로 모양이 다양하고 상투 크기에 따라 크기가 조정되어서 크기가 다양하다.



<그림13> 여러 가지의 縹冠
梨花女大 瀟人服飾美術館 所藏

가죽이나 우각으로 만든 고급품은 상류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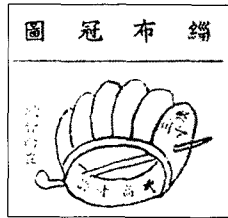
<표4> 纒冠의 材料 및 크기

分類 番號	名稱	材料 大分類	材料 小分類	年代	規格(cm)		紋樣	備考
					經	高		
1	상투관	骨角 貝甲	角	朝鮮	4.4	7.2	縱線紋 卍字紋 八卦紋 草花紋 花紋	
2	"	紙·竹	楮紙·竹	"	5.0	6.1		
3	"	木	松	"	4.0	6.0	八卦紋 雲紋	
4	"	"	柿	"	가로 5.4			
5	"	사 직	紙·麻	"	가로 6.3			
6	"	骨角 貝甲	角	"	3.0	4.1	八卦紋 太極紋 花草紋	앞날개부착 (뼈비녀 5.2)
7	"	"	"	"	4.1	6.8		앞날개부착
8	"	"	"	"		5.3	花草紋	앞뒤날개부착 (길이 7.1)
9	"	紙	楮紙	"		7.3	"	
10	"	사 직	麻·紙	"	가로 7.4			白骨비녀 (길이 8.4)
11	"	"	"	"	가로 6.4			
12	"	"	"	"	가로 6.3			竹비녀 (길이 10.8)
13	"	紙	楮紙	"	가로 8.6			
14	"	사 직	麻·紙	"	가로 7.2			
15	"	木	木(楮)	"	가로 5.8			통나무로조각 (상투관 本)
16	"	皮毛	皮	"	3.0	7.0		竹비녀
17	"	骨角 貝甲	角	"	4.5	5.5		角비녀
18	"	"	"	"	3.5	7.0	卍字紋 唐草紋 縱線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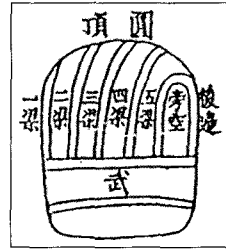
나 好事家들이 착용하는 것이다. 서민층 노인들이 단순히 의례적으로 머리에 쓰는 관으로는 거칠고 質이 나쁜 흑색 천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 이러한 작은 관을 老人冠이라고 한다. 노인관은 대체로 韓紙로 楷接하여 형태를 만들고 그 위는 베로 씌우고 검은 칠을 한 후에 다시 옷칠로 마무리를 한다.

『家禮輯覽』의 圖說 중 치관은 ‘吉祭 때 사용

하는 것’이라 하고 補註에 만드는 법이 나와 있다. “풀칠한 종이[糊紙]나 烏絲를 사용해도 옷칠을 더하여 만든다. 그 길이를 一尺四寸 남짓하게 하고 그 높이를 1촌 남짓하게 재단한 긴 가닥을 구부려 武를 만들고… 또하나의 가닥에 주름을 접어 五梁을 만들면 넓이가 사촌이 된다. 모두 왼쪽으로 향하여 꿰매고 그 가운데를 구부려 이마[頂] 앞뒤에 걸치게 하여 武의 아래에 붙



<그림14> 縹布冠, 『家禮輯覽』



<그림15> 縹布冠, 『한국 삼재도회』

인다. 半寸이 되게끔 길에서 안쪽을 향하도록 양끝을 맞붙이고 검은 칠을 한다. 또 무의 양가 반촌 위에는 구멍을 만들어서 비녀가 들어가도록 한다, 비녀는 白骨이나 象牙로 만든다.”라고 하였다. 또한 『四禮便覽』의 冠禮時 陳冠服의 諸具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치관 만드는 법이 있다. “비녀는 관에 꽂기 위해 사용되는 것인데 위는 둥글게 하고 끝은 뾰족하게 만든다. 가례본주에는 치골이나 흰 물건을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검은 칠을 하는 이유를 『家禮輯覽』의 冠에 관한 부분에 “현관에 적색 끈을 한 것은 천자의 관이며 치포관은 제후의 관이라 하였다. 註에서 대체로 처음에 쓰는 관을 흑색으로 한다는 것은 근분을 되찾고 옛것을 되찾는 일이나, 검붉은 색은 하늘빛에 의존한 것이며 흑색은 땅의 빛을 혼합한 것이기 때문에 …丘儀를 살펴보면… 공자가 대답하기를 치포관을 쓰는 것은 옛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함이다.”라고 하였다.

현전하는 상투관의 五梁은 모두 왼쪽을 향하도록 되었으며, 상투관의 작은 비녀는 우골·대나무·뿔 등으로 만들었다. 冠의 五梁은 五倫 [仁·義·禮·知·信]을 의미 한다고 한다.

조선시대 文臣 尹拯의 유품(重要民俗資料 第22號) 중에 상투관이 한 점 있다. 조사자의 설명에 의하면, “상투관은 목제로 되었으며, 정상이 둥글고 앞뒤로 네 줄의 선이 끝이 지게 조각되어 있다. 양 옆은 트여 있으며 상투비녀를 꽂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다. 17세기 초부터 18세기 초의 것으로 착용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고 다른 상투관에 準據가 되므로 그 가치가 크다 하겠다. 충청남도 논산 군에 사는 후손 윤여창이 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투관을 쓰고 있는 초상화에는 尹拯(1629~1714)·申鉉(1639~1725)·李匡師(1705~1777)·尹定鉉(1793~1874)·徐相烈(?~1896)·柳麟錫(1842~1915)·尹膺善(1854~1924) 등이 있고, 18세기 말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葆和翁의 초상화 등이 있다. 이 초상화들은 대부분이 17~19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당대 유학자들의 모습이다.

III. 결 론

조선시대 남자의 首飾에는 망건을 중심으로 網巾飾인 貫子, 風簪 그리고 동곳, 縹冠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남자가 상투를 튼 머리를 잘 음접해 두기 위한 머리띠인 網巾과 이에 따르는 頭飾品인 동곳, 상투관(縹冠)에 관하여 문헌고찰 및 유물을 살펴보았다.

斷髮하기 이전에는 冠을 쓰는 것이 곧 禮라는 등식에 따라 관을 특히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관을 쓰기에 앞서 머리카락을 여며 매는데 필수적인 망건은 자연스럽게 衣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다.

망건은 그 기원을 唐代로 소급해서 開元天寶(713~756)시 당 돈황벽화 「악정교부인행향도」 가운데 보이는 ‘透額羅網巾’을 망건의 始原形으로 보고, 또한 머리를 정돈할 겸 아름답게 꾸미기위해서 머리에 썼던 ‘사(纒)[緜(緜)]’가 망건의 前身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망건이 중국에 있어서도 상하 귀천 없이 통용되기는 明太祖부터이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조선조에 들어와 성행되었으며 冠禮를 통하여 成人으로서 비로소 망건착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마에 강하게 조여매야 하므로 망건으로 인한 질병 피해가 극심했다고 한다.

동곳은 상투가 풀리지 않게 고정시키는 것으로 여인의 비녀와 비견되는 기혼남성의 필수 수식물이다. 관자와는 달리 품계와는 상관없지만 옥석이나 금속으로 재료가 다양하다.

동곳의 양식을 머리 형태, 목의 형태, 몸체의 형태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해본 결과 동곳머리는 버섯형태[蕈]·콩형태[豆]·공형태[球]가 있으며, 이 밖에 단환형태, 상부가 잘린 단환 형태가 있다. 목 형태는 ‘곧은 목’과 ‘굽은 목’이 있으며, 이중 턱에 띠를 두른 것도 있다. 몸체는 각이 있는 4면체에서 8면체까지 있으며 원통형도 있다.

동곳의 형태와 재료와의 관계를 表로 만들어 본 결과 금속은 銀이 가장 많았으며 白銅, 金銅의 순서였다. 옥석은 白玉이 많았고 珊瑚가 다음이었다. 이 밖에 琉璃와 獸角[牛角·牛骨·黑角]의 순이었다.

은과 백동의 동곳머리에는 버섯형태가 단연 많았고, 버섯형태가 기본형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콩 형태, 말뚝형태가 있다. 하부는 말뚝같이 생긴 것도 있고 굽은 형태도 있는데 중간형태가 굽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꽃잎을 때 빠지지 않도록 배려한 것 같다. 동곳의 길이는 옥석은 2.4cm[珊瑚]~6.0cm[紅珊瑚]이고 금속은 2.5cm[銀]~6.0cm[銅]이다.

緇冠은 일명 치포관·치찰·찰계소관·노인관·상투관 이라고도 부른다. 詩에는 緇撮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太古冠이라 하였다.

치관은 상투를 겨우 거두는 작은 梁冠형태이다. 조선시대 유교사회의 풍습으로는 의관을 갖추지 않을 때도 치관을 착용해 맨상투를 드러내지 않았으며 차림을 갖추는 위에 다른 관모를 덧썼다. 덧쓰는 건과 관은 幅巾과 方巾이 많으나, 臥龍冠도 보인다.

치관의 재료는 麻布·木·竹·革·牛角·犀角 등이다. 가죽이나 우각으로 만든 고급품은 상류층이나 호사자들이 쓰는 것으로 八卦나 唐草紋·卍字紋·太極紋 등을 투각하거나 양각한 것이지만, 서민층 노인들이 단순히 의례적으로 머리에 쓰는 관으로는 老人冠이 있다. 노인관은 대체로 韓紙로 배접하여 형태를 만들고 그 위는

베로 씌우고 검은 칠을 한 후에 다시 옷칠로 마무리를 한다.

중국 明代 출토유물에는 金屬·琥珀·瑪瑙를 재료로 한 梁冠형태의 緇冠인 東髮冠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재료로 만든 치관은 찾아볼 수가 없다.

참고 문헌

- 1) 崔南善 (1948). *朝鮮常識* 서울: 東明社, p.111.
- 2) 沈從文 (1971).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商務印書館, p.220.
- 3) 李圭景 (1959). *五洲衍文長箋散稿 卷四* 서울: 東國文化社, p.98.
- 4) 李緯 著, 이수영 편역 (1992). *국역 사례편람* 서울: 이화문화출판사, p.271.
- 5) 李正玉 (1984). *朝鮮時代 冠禮服飾의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89.
- 6) 沈從文 (1971). *Op. cit.*, p.375.
- 7) *Ibid.*, p.408.
- 8) 李晔光 著, 南晚星 譯 (1978). *芝峰類說* 서울: 을유문화사, p.412.
- 9) 李圭景 (1959). *Op. cit.*, 卷四十五, p.469.
- 10) 李瀾 (1978). *星湖僿說 卷之六, 萬物門*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p.108.
- 11) 劉頌玉 (1982). *四禮服飾. 韓國의 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p.234.
- 12) 光海君日記 卷26, 2年 3月 丁丑.
- 13) 李圭景 (1959). *Op. cit.*, 卷三十四, p.1025.
- 14) 沈載完·李殷昌 (1972). *韓國의 冠帽* 嶺南大學校 新羅伽倻文化研究所, p.61.
- 15) 柳喜卿 (1963). 우리나라의 冠帽. *대한가정학회지 제4호*, p.66.
- 16) 成宗實錄 卷257, 22年 9月 戊寅.
- 17) 李晔光 著, 南晚星 譯 (1978). *Op. cit.*, p.410.
- 18) 李德懋 著, 민족문화추진회 편집 (1980). *창간관전서 V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22.
- 19) 徐有矩 (1967). *林園十六志* 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 p.527.
- 20) 高경희 (1991). *雁鴨池* 서울: 대원사, P.63.
- 21) 黃泓根 (1991). *韓國裝身具美術研究* 서울:

- 一志社, p.392.
- 22) 金明淑 (1999). 洪禹協 遺衣를 통해 본 朝鮮 時代 17世紀 服飾과 織物. *朝鮮時代服飾 研究* 서울: 학연문화사, p.54.
- 23) 金用淑 (1963). 宮中 「발기」의 연구. *향토서울 제 18호*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p.115.
- 24) 박혜진 (2006). 조선시대 후기 궁중패물 연구 -『궁중발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p.100.
- 25) 李京子 (1991). *韓國服飾史論*. 서울: 一志社, pp.265-266.